



Web Contents



2024년 05월 06일 04시 51분

목포 넘어 대한민국 대표할 야간관광상품 목포해상W쇼, 이번주 첫 공연

2024.04.25 조회수 90 담당부서 관광과



- 돌아온 춤추는 바다분수 더해져 한층 업그레이드
- 올해 4월, 5월, 7월, 9월 총 4번 예정

목포의 대표 야간 관광 콘텐츠인 2024년 목포해상W쇼의 첫 공연이 오는 27일 개최된다.

올해 목포해상W쇼는 4월, 5월, 7월 마지막 주 토요일과 추석연휴 맞이 9월 14일까지 총 4번 진행될 예정이다. 그 중 7월에 예정된 공연은 북항 노을공원에서 진행되며, 7월을 제외한 나머지 공연은 목포 평화광장에서 개최된다.

‘W’가 분수모양을 연상시키는 점에서 착안된 목포해상W쇼는 물(Water)에서 펼쳐지는 세계적인(World), 멋진(Wonderful)공연으로 감동(Wow)을 선사하는 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W쇼는 해상무대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공연과 불꽃이 결합된 국내 유일의 특별하고 예술적 가치가 있는 해상 불꽃쇼로, 지난해 많은 관광객에게 호평을 받으며, 목포를 넘어 독보적인 대한민국의 야간 문화관광 콘텐츠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작품성과 대중성 향상을 위한 콘서트형 퍼포먼스를 강화했다. 뮤지컬 갈라쇼, 댄스 뮤지컬, 일렉트로닉댄스뮤직(EDM) 공연 등을 통해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공연이 준비 중이다.

특히, 오는 27일 진행될 개막 공연은 감성 국악그룹 ‘밴드 이강’의 사전공연으로 관람객의 흥을 돋우고, 주 공연에서는 뮤지컬 배우 홍지민과 팬텀오브디 오페라 출연진들이 유명 뮤지컬 작품들로 목포의 밤을 낭만으로 수놓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연부터는 시설 기능 개선사업으로 한동안 운영되지 않았던 춤추는 바다분수가 재개되어 11월30일까지 정기공연을 이어간다.

춤추는 바다분수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이후 봄(4월~5월), 가을(9월~11월)에는 화요일·수요일·목요일·일요일 하루 2회(저녁 8시, 8시 30분)가 운영되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하루 3회(저녁 8시, 8시 30분, 9시)가 운영된다.

여름철(6월~8월)에는 공연을 좀 더 늘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3회(저녁 8시 8시 30분, 9시)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다.

바슬루 목포시장은 “목포해상W쇼를 목포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http://www.mokpo.go.kr)

극승을 목포시장은 목포해경VV포를 목포메시지인 만큼 두 켜는 특별한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목이 기
능개선사업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춤추는 바다분수가 다시 재개됨에 따라 화려하고 멋진 공연을 이어갈 수 있게되어 기
대가 된다”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상생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되는 행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광과장 강광룡, 축제팀장 엄인경 270-8440, 주무관 최강 270-8431)

첨부파일	 2.목포 넘어 대한민국 대표할 야간관광상품 목포해상W쇼, 이번주 첫 공연.jpg (18 hit/ 24.10 MB) ↓
전체(Zip)다운로드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다음글
< 목포시, 목포대 의과대학유치 SNS릴레이 캠페인...	목포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제도기간... >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MokPo - Si
Web Contents

